

#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신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 평안북도, 량강도, 함경북도, 강원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물결사나운 배길과 험한 갈랑길을 헤치시며 오르신 신도와 흙먼지 날리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 온포휴양소와 청진기방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사랑의 감동적인 화폭들이 펼쳐져있다.

특지와 떨어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섬사람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군인민병원과 학교들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필요한 자재보장대책을 즉석에서 세워주시였다. 신의주방직공장을 찾으시어서는 공장장속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며 그 러전도 잡아주시였고 삼지

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 가시어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공장장으로 되여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도 남기시였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가장 큰 기쁨, 제일 큰 만족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 마련되는것이다.

굴지의 련어생산지로서 전변된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돌아보시며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을 그려보시는듯 바닷가 웃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인민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며 그이께서는 그물우리양어장의 련어들을 보고 또 보시

며 대서양련어와 가공품들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집중적으로 보내주어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마천부터 봉사를 시작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는 그의 사랑속에 마련된 련어와 칠갑살어를 비롯한 고급어족들이 식탁에 올라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염분진지기를 인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지로 이채롭게 꾸리기 위한 건설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온포휴양소를 찾으시고는 편리운영실태와 형편을 알아보시고 앞

로 우리 나라 온천휴양소의 본보기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성군 증평리에 건설할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 부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남새온실농장건설전망계획을 밝혀주시였다.

광활한 옥토를 바라보시며 여기에 100정보의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멋있을것이라고, 이만한 온실면적이면 도내인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할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신 그이이시였다.

하시는 말씀마다 인민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어디에 가시어셔도 인민, 그 무엇을 보시어셔도

민들 생각뿐이시였다. 그의 마음속 첫 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그의 심중에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열정이 짙게 있었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은 엄격한 검열관, 심사관이며 인민들의 평가속에 제품의 끊임없는 질적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하시였다.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의 절대적기준을 인민의 요구와 평가로 정하신것이였다.

언제인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씩에 얹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을 천품으로 지니신분이시기에 인민을 문명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시기 위하여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창조와 건설의 기적을 다발적으로, 번발적으로 안아오시며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는것이였다.

에로부터 삼복더위에는 소불도 구불어든다고 하였고 삼복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땀알도 무겁다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삼복의 더위를 이겨내기가 몹시 힘겹기에 사람들이 퍼서주와 휴양지를 찾아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그러나 강철도 견디는 인민의 무더위속에서도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한여름의 무더위속을 헤치시

며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자신의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람있는 일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그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 인민의 아버지이시다.

그이의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처에 감복한 외국인들도 《김정은각각는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걷는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에서 삼복의 더위를 이겨내기가 몹시 힘겹기에 사람들이 퍼서주와 휴양지를 찾아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그러나 강철도 견디는 인민의 무더위속에서도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라고 격찬하였다.

인민을 마음속에 안아고 걸으시는 그의 헌신의 길, 열사복무의 길에서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불랑기》화장품들

**◎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해수욕장을 찾으시고**

주제102(2013)년 5월 어느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마진해수욕장을 찾으시였다. 해수욕장에 어떤 봉사시설들이 있으며 그 리용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해수욕장으로 합흥시뿐아니라 평양시에서도 해수욕을 하러 온다는데 대하여 아시고 지금 해수욕장에 있는 휴양객들을 가지고서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는것만큼 개선할 때 수용능력이 큰 현대적인 휴양객들을 새로 더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해안선을 바라보시면서 해일이 어찌까지 들어오는가고 물으신 그이께서는 이 해수욕장은 날마다기때문에 해일피해를 받을수 있는것만큼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누구도 생각 못한 해가림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중에 있는 문수물놀이장을 또다시 찾으시신것은 주제102(2013)년 9월 어느날이였다.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기에 해가림대를 설치해야겠다고 하시였다. 물놀이장의 천정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체광이 잘되어 여름에는 몹시 더울수 있다고, 햇빛을 막을수 있는 해가림대를 설치해주어 인민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나와서 그늘에서 휴식도 하게 해야 한다고 누구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를 대책하도록 하시였다.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하시하는 그이께서 물놀이장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때 길이 헤아리고 조치하신것이였다.

본사기자

**◎ 승리의 전통은 영원하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되였다.

조국수호전에서 빛나는 군공을 세운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극진히 아끼고 내세우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의 이름으로 축하문도 보내주시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전승절을 세운 경축하도록 하시고 로병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신것은 전쟁로병들을 축하해주고 그들의 삶을 빛내여 주며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투쟁정신으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새 세대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최후승리를 향한 장엄한 투쟁으로 불리워키기 위해서이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갓 해방된 조선인민과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공화국에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은 실로 위대한 전쟁이였으며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였다.

보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전쟁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

게 뭉쳐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승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비롯한 혁명의 년대기마다 각이한 초소들에서 기수가 되어 많은 공로를 세운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들이 조국앞에 세운 헌신하는 위훈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으리 여기는것이였다.

자신께서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배경으로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대표들에게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들인 전쟁로병들이 로당위원장하며 후대들의 심장마다에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지녔던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심어주는 훌륭한 스승, 교양자로 생의 순간순간을 빛내이데 대하여 말씀하신것이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오늘 공화국을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적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운 귀중한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펼쳐나선 전제군대와 인민의 진군을 떠밀어주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

대가 있고 후대들에게 넘겨준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가 있기에 오늘의 행복과 끝없이 강성번영하는 조국이 있는것이였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절세위인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승리의 전통은 영원히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전승미

겨레의 통일번영을 위한 길에 생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속에는 남조선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도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길에 남긴 그의 자취는 열렬한 민족애와 통일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덕망과 의리에 의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자욱으로 남게 되였다.

인생의 황혼기에 여생을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북남협력사업에 바치는것은 그의 부친인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한기다의 소망이였다. 민족적정성이 있고 통일의지가 있다면 대자부라라고 해도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길에서 손잡고 함께 나갈것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경륜에 공감하였던 그는 1998년 6월 북핵길을 단행하였다. 그리운 고향에도 가보았고 친척들과도 만났으며 금강산과 묘향산도 편답하였다. 골짜기 보낸 련정이고 감격스러운 날이였다. 그는 내친걸음을 더는 멈출수 없었고 얼마후 다시금 평양행을 결단하게 되였다.

그해 10월이였다. 어느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평양에 체류중인 그를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고령인 그의 신상을 헤아리시어 체류기간 불편한점은 없었는가, 다리를 불편하게 쓰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되여 그렇게 되였는가도 자상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정주영선생이 배양이 세고 한번 하라고 하는 마음이면 끝까지 내미는 성미를

위대한 장군님의 넓은인 도량과 용단에 의하여 그해 11월 동해의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남녘의 관광선을 이금강산관광의 첫 등고리를 올림으로써 북남경제협력의 물고기가 트이게 되였다.

해를 넘기며 많은 남녘인민들이 이금강산에서의 관광길을 이어가 단란한 시간을 보낼수 있게 하는 마음은 정주영명예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업가는 기

피속에서 평양과 서울에서 진행된 북남통구경기를 보면서 이 모든것이 현대그룹에 대한 김강일국방위원장님의 관심이고 배려라고 하면서 앞으로 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할것이라고 마음을 가다듬은 정몽헌 회장이였다.

그는 2003년 8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북남경제협력과 민족공동

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두터운 믿음과 대해같은 덕망, 숭고한 민족애에 의하여 금강산은 통일 의 명산으로, 개성공업지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6.15시대의 옥동자로 겨레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그룹의 선임자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믿음과 의리, 민족의 화해와

#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믿음과 은정

가지고있는분으로 알고있다고 하시던 그이께서는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금강산관광개발문제를 비롯하여 그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애국애족의 림장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력을 잘 해나가도록 할때 대하여 그리고 민족이 잘되고 잘살게 하려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손잡고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단란한 시간을 보낼수 있게 하는 마음이면 끝까지 내미는 성미를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이 깊고 그의 뜻과 가르침이

업으로 애국애족한다는 자기의 지론과 함께 북남협력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기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선의를 신의로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지게 되였다.

그가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에 대한 더 큰 기대를 안고 다시 공화국을 방문한 주제89(2000)년 6월 어느날이였다. 그를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민족이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는게 최우선임을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이 깊고 그의 뜻과 가르침이

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관련하여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한번 잘해보자고 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갔다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그의 맘과 노력 이 승배인 금강산에서 추모회를 열도록 하시고 비도 세우도록 일이 조치하시였다.

현대관계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정주영, 정몽헌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선임자들을 회고하시며 번영하는 현대가 되라고 고무도 하고 기업활동과 북남경제협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

단합, 통일번영을 위하여 기울이신 숭고한 뜻과 유훈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덕망과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주제102(2013)년 8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몽헌회장의 사망 1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금강산에서 추모식을 가지도록 일일이 보살피주시였다.

몇해전 평양을 방문한 현대그룹 정주영, 정몽헌회장을 만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통일애국의 길에서 현대일가와 인연을 맺고 두터이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 비추게 되

였으며 현대일가에게 베푸신 믿음과 정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음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서거 3돐에 즈음하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추모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어왔을때는 그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시여 정주영, 정몽헌선생들이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남긴 애국적소행을 온 겨레는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현정은회장 선생의 사업에서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경에하는 원수님은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화같은 민족애를 지니신 민족의 아버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였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함께 나아가시려는 확고한 통일의지와 숭고한 동포애, 넓은 도량과 포용력, 대범한 구상을 지니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고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앞날을 굳게 확신하고있는것이였다.

장혜련